



이재욱 전남일보 사장이 15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국회의원선거 광주·전남 당선자 교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재욱 전남일보 사장이 15일 5선으로 지역 최다선 의원이 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당선자(오른쪽)와 지역 최연소 정준호 당선자에게 전남일보 지면을 활용해 만든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



2024 국회의원선거 광주·전남 여성 당선자인 전진숙(오른쪽) 광주 북구를 당선자와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당선자가 손을 맞잡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화보=김양배·나건호 기자



해외출장 중인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전남 당선자들에게 영상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2024 국회의원선거 광주·전남 당선자 교례회에서 이재욱(왼쪽부터) 전남일보 사장과 양부남(광주 서구을), 신정훈(나주 화순) 당선자, 박종탁 농협전남지역본부장이 축하의 박수를 치고 있다.

↓이재욱 전남일보 사장 등 내·외빈들과 광주·전남 당선자들이 광주·전남지역 발전을 위해 건배를 하고 있다.

